

진료소 사업의 중심은



• 농민의 건강은 곧 국민건강의 귀중한 보루

아직은 따뜻하게 느껴지는 햇빛이 차창을 통해 스며드는 10월의 오후. 미처 마치지 못한 추수를 서두르는 농민의 일손은 바쁘기만 하게 느껴진다.

그들의 손에 맡겨져, 우리의 식탁까지 오르는 곡식의 풍성함을 보며 그들의 건강이 곧 우리 국민 건강의 귀중한 보루임을 새삼 깨닫는다.

대구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 경산을 거쳐 청하로 가는 길가엔 홍시가 되기를 기다리는 감들이 주렁주렁 열려있었고, 스쳐 지나가는 산은 고운 단풍빛같이 선명하게 보였다. 완연한 가을이었다.

목적지인 관하보건진료소(경북 청하군 매전면 관하리)에 도착한 것은 늦은 오후였다.

깔끔하게 정리된 진료소의 첫 인상은 아주 상큼하게 느껴졌고,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는 진료소장 이영씨(34세)의 소박한 미소가 웬지 친근감을 느끼게 했다.

그녀는, 학교를 졸업한 후 진료소근무 만8년을 해왔고 관하 보건 진료소에서 근무한 것은 3년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곳 주민들의 고통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중의 하나이다.

주민 예방 사업입니다.

경북 청도군 매전면 관하보건진료소 주민 건강검사

건협 경북지부는 지난 3월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관하보건진료소의 의뢰로 지역주민 건강검사를 실시했다.

진료소 운영 기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는 이 진료소 건강검사 사업은 농민들의 건강 검사와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진료소 사업의 가장 중심은 예방사업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이곳 진료소장 등을 만나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들어보기로 한다.

• 보건업무 일선에서 절실히 느낀 건강검사의 필요성

관하보건진료소의 주민건강검사 사업이 처음 실시된 것은 지난 해의 일이었다.

『진료소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은 역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고,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상적으로 많이 들어오던 애기였지만 막상 일선에서 농민들과 부딪히다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보건진료소 주민 건강검사 사업의 공로자인 이영 소장의 얘기다. 그녀가 특히 관심을 가졌던 것은 여성들의 자궁암 검사였다고 한다.

『모두가 그렇지만 농촌 사람들은 병원문턱을 드나들 일이 거의 없습니다. 경제적·시간적인 이유와 무지에서 오는 결과죠. 특히 여성들의 경우 자궁암에 대한 인식도 없었을 뿐더러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를 해볼 엄두는 내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사실을 아는 저로서는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 진료소 운영기금 중 일부로 주민 건강 검사

그녀의 주민 건강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87년도 운영위원회에서, 보건진료소 운영적립기금중 일부를 주민 건강검사 사업에 쓸 것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뜻밖에도 쉽게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두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영 소장의 눈빛이 밝게 빛났다.

관하 보건진료소가 개소한 것은 '84년이었다고 한다. 초창기 개소 당시 지역 유지로부터 받은 찬조금과, 진료수입 中의 일부를 적립해 온 것이 오늘의 검진 사업을 가능케 했다고 한다. 관하보건소는 현재 7개동의 2,567명의 주민이 건강을 담당하고 있다.



▶ 진료소 운영 기금의 일부를 활용한 지역 주민 건강검사를 실현시켰던 이영 관하보건진료소장

• 진료수입이 가장 중요한 자원

이 검사사업의 배경을 좀 더 자세히 듣기 위해 운영위원장을 만났다.

- 보건진료소의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보건진료소가 설치가 되면,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진료소의 사업계획이나 운영방침은 대부분 매년 열리는 정기 총회에서 결정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 임시총회를 열곤 하지요.』

- 운영기금은 어떤 식으로 적립되고 운영되니까?

『중요한 재원은 진료 수입이죠. 그 외에 운영위원들의 회비, 기부금 등이 적립되지

요. 이 기금은 진료소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에 쓰여집니다. 그중의 일부가 주민 건강감사에 쓰여진 것이죠.』

운영위원회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기원씨(운영협의회회장)는 자신들의 손에 의해 지켜지는 농민의 건강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는 듯했다.

•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위해 건협 선택

『작년에는 일반종합병원에 자궁암검사를 의뢰해서 모두 155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중에 2명의 이상 소견자를 발견해서 치료토록 조치했지요. 그리고 올해에는 건강관리협회에서 여성은 자궁암, 남자는 간기능 검사를 실시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라며 이 소장은 『주민들의, 건강이나 검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기쁩니다.』라고 덧붙여 보건 실무자로서의 성실함을 느끼게 했다.

지난 3월에 실시된 이 주민건강감사는 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에서 관하보건진료소를 찾아가서 찾아오는 농민들의 건강검사를 해주는 형식으로 실시되었다.

그녀는 건협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작년에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나서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보다 간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진료소장 교육때에 만난 다른 동료에게 의논했었습니다. 그 동료가 건협을 소개하더군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 건협 경북지부에 검사를 의뢰한 그녀는 앞으로도 검사종목을 확대하면서 주민 건강 검사 사업에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기도 한다.



한편전협 경북지부 이 우광 사업과장은,
『제가 알기론 이 사업은 전국에서 최초의 일입니다. 규모로 보나 조건으로 보나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역주민 건강 관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면서 이 사업을 함께 하게 된것이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이곳의 한 주민은 『처음에야 크게 관심갖지도 않았지요. 마침 농한기고, 이장님의 권유도 있고 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좋게 나와서 기분도 좋고, 건강하다니까 안심도 되고 그러네요.』라면서 이제는 매년 검사를 받고 싶다고 말한다.



• 검사대상과 종목 확대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이 소장은 『아직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검사 종목도 한정되어 있고, 검사대상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남은 부분만을 일반 희망자의 검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검사종목이나 대상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힌다.



• 보건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아직 농촌주민 건강관리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보건교육의 문제는 저로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용 자료로 부족하고 교육시기도 잡기가 어렵고, 또 쉽게 이해시키기도 어려운 것이 보건교육인 것 같아요.』라면서 그래도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이 소장은 강조한다. 그러나 그녀의 겸손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보건교육에 대한 노력은 이번 건강검사에 대한 주민의 인식의 변화로서 결실을 보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자유로운 시간이 별로없지만, 뭔가 보람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데에 사명감과 자부심을 느낀다면, 이영 소장은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덧붙이기도.

농촌 사람들의 순박함과 건강하게 그을린 모습을 뒤로 하고 관하 보건진료소를 떠날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져 있었다.

어두움 속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어느 농부의 모습을 보면서 보건사업도 그런 농부의 자세로 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